

친인척 한마을 동지... 주말마다 단합 파티

■ 담양 창평면 달뫼마을 김명희씨 등 3가족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일대는 광주에서의 접근성과 풍광 등으로 인해 전원 주택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용수리 2구 용운마을은 월봉산의 한글이름을 딴 달뫼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찬용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한 5~6명이 수년전 이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정착하면서 대표적인 전원마을로 자리를 잡았다.

김명희(여·50)씨 가족도 비교적 초창기인 2003년 6월 용운마을에 들어 온 경우다. 광양이 고향으로 담양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전원생활을 즐길 곳을 찾다 농협에 다니는 매제의 권유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용운마을이 대표적인 전원마을로 이름이 난 상태라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하던 중 시사문화가 장승태씨가 순천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장씨 집을 매입했다. 이후 명희씨 여동생 진아씨(41) 가족과 명희씨 시누이 가족이 지난해 3월과 4월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세 가족이 함께 전원생활을 즐기게 됐다.

현재 명희씨집은 마을입구에 있는 달뫼미술관 옆에 있고 동생 진아씨와 시누이네 집은 마을 뒷쪽에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세 가족이 한 마을에 동지를 틀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마을안에 마땅한 땅이 없는데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먼저 들어온 정찬용씨 부인의 소개로 세 집이 함께 1천300여평의 땅을 사들이면서 공동 전원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1천 300여 평 중 진아씨네 집이 대지 250평에 건평 40평, 시누이네 집이 대지 350평에 건평 43평으로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공동 텃밭과 텃밭 관리를 위한 원두막, 명희씨네 집 부지가 있다. 명희씨네도 머지않아 달뫼미술관 옆 집을 팔고 이곳에 집을 지을 계획이다.

세 집 공동으로 땅 사들여
집 짓고 나머지 텃밭 운영
정원 가꾸기·채소재배 등
서로 도우며 협동심 길러

텃밭이 넓다보니 가지·고추·토마토 등 어지간한 야채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텃밭 입구에 있는 원두막 '망우정(忘憂亭)'은 정찬용씨 부인이 '근심을 잊어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세 가족의 공동작업 출발점이자 만남의 장소다.

텃밭에서 따온 야채를 나눠 먹고 가족간 대화를 나누는 곳이자 수시로 찾아오는 지인들과 바베큐파티를 벌이는 장소로도 쓰인다.

진아씨는 "이곳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세 가족이 함께 살다보니 아직까지도 매주 주말이면 파티가 열린다"며 "주말이면 소풍 온 기분이 드는 것을 볼때 내가 전원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가족간 공동 전원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협동생활에 있다. 명희씨는 "전원생활을 하다보면 직접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텃밭 농사부터 다른 집 정원가꾸기까지 모든 일을 도와가면서 하다보니 힘이 훨씬 덜 든다"면서 "맘에 맞는 사람끼리 전원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는데 가족끼리 모여살게 돼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진아씨네는 전원생활의 성공 모델로 꼽힐만 하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전원생활을 만끽할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진아씨네 집 구조는 여느 전원주택과는 다르다. 한 건물이지만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시부모 방을 배치하고 거실과 진아씨 부부방 등은 중앙 테라스를 중심으로 다른 편에 배치해 부모를 모시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수 있도록 했다.

진아씨는 "광주에서 아파트생활을 할때보다 이곳에 살면서 시부모님의 병세도 좋아진 것 같다"며 "전원생활의 여유로움도 즐길 수 있어 가족들의 만족감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달뫼미술관은

용운마을 입구에 있는 달뫼미술관은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사실주의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전남대 신경호교수가 마을창고(40평)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지난 2006년 5월 18일 문을 연 이후 사실주의 미술의 산실이자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달뫼미술관은 담양군과 마을 주민 인근지역 작가들이 비용을 마련해 개관한 까닭에 미술관 소유도 용운마을 주민들이다.

광주·전남 최초 사실주의 미술관

사실주의 전문 미술관답게 운영 방향도 ▲한국의 참다운 리얼리스트 작가 작품 전시 ▲차세대 예술 운동 전개 ▲거품없는 미술작품 유통 ▲농촌 주민과 함께하는 미술 등을 내걸고 있다.

전시작의 경우 유명도와 상관없이 미술유통운동 차원에서 최고가를 200만원으로 한정해 그림 애호가들이 손쉽게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가의

30%를 미술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화'를 주제로 담양에 사는 독일인 베르너 사세 한양대 문화인류학 석좌교수와 그의 제자로 귀화한 빈도림(독일명 디르크 핀들링)씨의 작품을 전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명희씨(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세 가족이 김씨의 시누이 남편인 이흥렬씨(왼쪽에서 두 번째) 집 앞마당에 모여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희씨를 비롯한 세 가족이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명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발부모와 당선회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02-221-0100, 02-221-0101, 02-221-0102, 02-221-0103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 지점: 010-9566-8114